

■특별기고 - 權仁浩(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1)

유학의 근본이 되는 것, 곧 종지(宗旨)는 '자신을 수양해서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일' (『대학』)이다. 즉 올바른 정치를 행하여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대동사회(大同社會; 『예기』 『예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대학'에 실려 있다고 보면, 그것은 '대인의 학문' 곧 유교 리더십이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 이야기 가 아니라고 본다. 정치는 바른 것이고 정명(正名)과 정의로워야 한다. 그 수단과 방법 및 목적과 그 결과가 있어서도 같은 것이다.



서울대학교(초대 총장 미국인)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가 한국의 유학 교육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의 리더십은 천하(세상)에 대한 우환의식(憂患意識)과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개인의 사사로움 욕망이 아니라 현재에 중점한 시중지도(時中之道)의 시대정신을 지니고 확연대공(廓然大公)한 글자 대인의 공심으로 자연 사물과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사상이나 정치철학적 핵심은 유학의 민본·위민사상이다. 우리의 전통에서 선비와 청백리 등에서 청빈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유교의 리더십은 천하(세상)에 대한 우환의식(憂患意識)과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개인의 사사로움 욕망이 아니라 현재에 중점한 시중지도(時中之道)의 시대정신을 지니고 확연대공(廓然大公)한 글자 대인의 공심으로 자연 사물과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사상이나 정치철학적 핵심은 유학의 민본·위민사상이다. 우리의 전통에서 선비와 청백리 등에서 청빈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유교의 민본 정치사상에 관한 논의를 좀 더 현실과 과거의 대화 차원에서 자주 논의되어야 한다. 과거 유교 정치현실에서 과연 맹자 주장한 '민귀군경(民貴君輕)' 사상(『맹자』 「진심장구」 하: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즉 민(백성) > 종묘사직(국가) > 군(왕)으로 주장된 민본사상이 얼마나 '실질적이나 구체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었던가?' 하는 의문도 가져야 하고, 지향하고자 한 정치사상과 당시의 시대적 정치과제의 현실사회에서의 실행에서 그 괴리를 질타하고자 한 유학의 비판 정신을 이 시대에도 계승발전 시키기 보다 역동적인 유학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학의 사회·정치철학적 요소에 대한 연구의 시각과 태도 문제는 앞서 말한 형이상학적 담론이 갖는 비현실성과 관련하여 분명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닐 때 유학은 발전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명명덕(明明德)'과 '정덕(正德)'의 형이상학적 고담준론이 탈정치화 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잠재우고 개인의 도덕윤리를 강조하여 현실순응(권력에 순처)적 인간상을 만들었으며, 끝내 '신민(천민)'과 '치국평천하' 그리고 '이용후생(利用厚生)'과 '경제치용(經世致用)'을 방기 망각케 하여 유학자가 유학을 배반하고 공맹(孔孟)·정주(程朱)·퇴유(退溪)를 내세우면서도 공맹·정주·퇴유를 배반했음을 우리는 깊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이 세계 3위(중국, 인도 다음)의 미국 유학 학생수치를 기록하고, 대학의 역사가 300여년 밖에 안 된 미국식 대학교육 개혁(과거 실패한 학부제 강화와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강화개혁, 입학사정관 제도 등)으로 고구려 대학(大學) 이후 1,637년의 대학 역사를 가진 한국의 대학교육이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100여년 된 미국의 기독교(신교) 선교의 결과는 1,300만 기독교 신자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제사와 전통 민족종교에 대하여 '사이비', '미신(나는 제사가 싫다는 책도 나와 잘 팔리고 있다 한다)' 등의 용어로 사탄시하고, 심지어 전쟁하듯 공격적으로 전도와 협박(예수 천당', "불산-지옥" 등)하고 있다.

과거 유·불·도(선)교의 전통사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유교 민본정치사상과 현실 민주주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자주 '혁명(革命)과 쿠데타(Coup d'Etat; 프랑스어로 '쿠데타'란 탈퇴하거나 때리거나 치는 것이고, '에타타'란 국가나 권력의 뜻이다, 즉 국가 권력을 빼앗는 행위이다)'를 이야기 한다. '혁명'이란 '천명(天命)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천명이란 곧 민심(民心民意)'을 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인 천명은 항상 한 성씨나 한 왕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천명미상天命靡常 『시경』)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국 안동권씨 농협조합장 시조묘소 고유제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안동권씨 조합장 11명이 시조묘소를 참배, 합동으로 고유제(告由祭)를 봉행했다.



시조묘소에서 고유제를 마친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7월 28일 오전 11시 안동시 당북동 안동농협조합 사무실에서 지난 3월 13일 전국 각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안동권씨 농협조합장 18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7명은 현지에서 행사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권숙동 안동농협조합장을 비롯해 남영수 농협 디지털금융부 부회장, 김철회 농협 안동시지부장, 오창주 농협 안동시지부 단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안동권씨 조합장들이 안동농협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권숙동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권문은 역사적으로 보나 이 지역의 뿌리요 자람"이라며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에 당선됐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울러 전국 안동권씨 조합장협의회를 발족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조합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자신이 소속돼 있는 농협과 안동권씨의 활동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안동권씨 조합장협의회를 주선한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은 "우리들의 잦은 모임을 통해서 한 핏줄인 것을 알 수 있고 개인 발전은 물론 농협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회의를 마친 이들은 안동시 서후면 능골 시조묘소를 참배, 합동으로 고유제를 올린 후 묘소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일부 조합장은 "시조묘소를 처음 찾아 보니 죄송하지만 고유제를 올려서 그런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고유제를 마친 이들은 안동댐 월영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허제사법 까치구멍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앞으로 자주 만나 협력하자고 약속한 후 헤어졌다. 이날 안동농협은 두부, 성주농협은 참외, 북안동농협은 누룽지, 남안동농협은 된장과 양파 등 지역 생산품을 선물로 교환하기도 했다.

고유제에 참석한 조합장은 다음과 같다 (무순).

- △권혁준(경기도 이천 호법농협) △권덕희(강원도 양구군농협) △권오춘(충북 충주 수안보농협) △권혁민(전북 정읍 칠보농협) △권순욱(경북 문경 영순농협) △권성기(경북 봉화 춘양농협) △권윤기(경북 성주 벽진농협) △권현준(경북 영주 풍기인삼농협) △권기봉(경북 남안동농협) △권영규(경북 북안동농협) △권순협(경북 안동농협) (보도부장 권영진)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과 협력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로 승격 추진

매년 8월 26일에는 이치대첩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그동안은 충남 금산군청과 이치대첩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으나 올해부터 금산문화원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금산 이치대첩지 기념사업회 국가사적지 승격추진위원회에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문화재 관리 방안 모색

예산은 예년에 비해 1천만원이 많은 2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금산문화원에서는 이치대첩 기념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임진왜란 최초 육전승리에 걸맞게 좀 더 크고 알차게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의 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사적으로 승격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이치'가 금산과 완주 사이의 고개이고, 전적지 범위가 넓게 걸쳐있으므로 양쪽 지자체에서 각각 문화재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군과 완주군, 충청남도

6월 28일 금산군청 상형실에서 '금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전문가 학술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포럼에서는 곽호재 충남도립대학교 교수가 '임진왜란 중 전란의 흐름과 이치대첩'을, 하태규 전북대학교 교수가 '웅치전투와 이치대첩 현장과 그 자취'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어 이재준 군사문화연구소장의 '한국 전쟁사

상 이치대첩의 위상', 최병화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의 '금산 이치대첩지의 지표상 유물', 김희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의 '이치대첩지 문화재 가치와 지정 승격의 의미'가 발표됐다.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중 조선의 판군이 내륙에서 거둔 최초의 승전이다.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호남지역의 광창지대를 수호하고 전주사교의 조선왕조실록, 태조어진 등 귀중한 문화기록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

현재 이치대첩과 관련한 문화유산은 총 3건으로, 금산 이치대첩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54호), 이치전적지(전라북도 기념물 제26호) 그리고 권윤장군이치대첩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추로지향의 문화 향기, 안동권씨 복회

지난 7월 13일 토요일 10시 30분 안동하회탈공연장에서 안동종친회 복회 한마음대회가 안동권씨복회(氏)회추진위원회(회장 권승근) 주최로 안동권씨 안동종친회(회장 권숙동) 회원과 각 파종회장 등 약 2000여명(도시락 1200개가 부족하여 추가 주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위원회를 긴급 구성하였다. 본인은 검교공파종회장으로서 복회에 다녀왔다. 처음 참석하는 행사였다. 이 복회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안동을 대표하는 안동김씨(安東金氏), 장씨(張氏)의 대표자, 김광림 국회의원, 권경달 전 총재, 권계동 전 총재권 한대행, 권오을,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등을 위시하여 많은 저명인사들이 축제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추로지향(鄒魯之鄉)의 문화 향기가 천리만리 진동하는 것 같았다.

모임이 있었기에 오늘날도 해마다 조상님들을 모시는 춘추향의 제례 행사를 이어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 전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리라.

복회는 옛날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초복날 일가들이 한데 모여서 개나 닭 등을 잡아 국을 끓여 배고픔을 달래던 단합대회로 일종의 문화행사였던 셈이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안동종친회에서는 복회추진

위원회를 긴급 구성하였다. 본인은 검교공파종회장으로서 복회에 다녀왔다. 처음 참석하는 행사였다. 이 복회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안동을 대표하는 안동김씨(安東金氏), 장씨(張氏)의 대표자, 김광림 국회의원, 권경달 전 총재, 권계동 전 총재권 한대행, 권오을,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등을 위시하여 많은 저명인사들이 축제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추로지향(鄒魯之鄉)의 문화 향기가 천리만리 진동하는 것 같았다.

또한 조상들의 일을 이어받아 안동권씨의 제례문화 또한 젊은 세대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성스럽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으뜸 되는 책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격변하는 현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한 처방이 될지 노소 자손들이 머리를 맞대 강국을 쫓는 데 힘썼으면 한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정교

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복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90세를 바라다보는 나이에 서



에서 안동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은 좀 힘든 일이지만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다. 조상들의

음덕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다.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 권태강 검교공파총회장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2019년 8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서울산악회 정규산행 안내 (제298차)

- ◆일 시 : 2019년 8월 18일 오전 10시(매월 3째 일요일)
- ◆등 산 지 : 송추계곡
- ◆집결장소 : 불광역(3호선)
- ◆준 비 물 : 산행필수장비 등 개인별 준비
- ※ 시원한 물, 기암괴석, 녹색하파. 안오시면 후회합니다.

회 장(권종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9년 8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종훈